

1997년도 학술 답사 보고서

- 국어학반 학술 답사 보고서
- 고전문학반 학술 답사 보고서
- 현대문학반 학술 답사 보고서

국어학반 학술 답사 보고서

1. 답사 개요

(1) 기간

1997년 4월 23일~4월 26일(3박 4일)

(2) 지역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읍, 무장면, 홍덕면, 해리면 일대

(3) 목적

전라북도 고창 지역어의 조사

(4) 참가 인원 : 최명옥 교수 외 17명

지도교수 : 최명옥 · 송철의 교수

인솔조교 : 정인호

1조 : 이혁화, 노재민, 라리사, 이연진

2조 : 유펠채, 문금현, 이지영, 이안구

3조 : 정인호, 신중진, 안희제, 이광호

4조 : 한성우, 임석규, 이상신, 서승완

2. 답사 결과 : 조사표 참고

고창지역어의 조사표(무표:공통, \$:홍덕면, @:고창읍, #:해리면)

표준어형	고창지역어형	표준어형	고창지역어형
챙기	챙기	광주리	광주리 #강주리
보습	보십	또아리	또가리
써레	써:래 #써울	삼태기	삼태미 #소코리
널	양판지	키	치
볍씨	씬나락 \$볍씨, 벓씨	절구	도구통
모	모 #모종	학	학똑
비료	비료 #비루	빵다	\$@빵군다 @#빠순다
퇴비	토비 \$퇴비(thöbi)	조리	\$조리 @조래미 #조랭이
김	지심 \$김:	씨아	씨아시
이삭	이삭 #이스락	소	소
새꽤기	회기(högi)	외양간	외양깐(öyapk'an)
깜부기	깜부기 \$깜배기	구유	구시 @구수
베다	빈:다	고빼	꼬빼 \$괴빼 #고리빼
벗단	\$나락따발	멍에	멍애
그루터기	\$끌텅 #모폭	푸성귀	@푸정가리
벼훑이	흘태	포기	#폭
명석	더썩	밭	밭 #바체(-애)
짚	집 지푸락	매다	맨다
새끼	새내키	흙	혹
벼	배 나락	들	들:
방아	방아 @방애 #방애	마지기	마지기
디딜방아	드들방애 #드들방애	호미씻이	@만두리 #기맹기
등겨	몽근저 \$쌀겨	흉년	흉닌 #충년
왕겨	맵FFE \$맵깨	눈	눈
뉘	뉘(nü) \$뉘(nwi)	테	태
되	되(tö)	검은자위	꺼밍창
되다	된:다	흰자위	흰창
가웃	가웃	코	코
밟다	봄는다 #밤는다	언청이	째보
엿기름	엿찌름	귀	귀(kü)
밀	밀:	귀머거리	귀머거리
밀기울	밀:풀 #밀찡갱이	뺨	뺨 #뺨
옥수수	깡냉이	뺨이	빠미 #빠미
감자	하자고구마 \$하지감자	버짐	배짐 \$백태

표준어형	고장지역어형	표준어형	고장지역어형
고구마	고구마 \$감자 @창감자	기미	\$기미, 지미 @기매 #지계미
무	무시 \$무: #무수	곰보	빡뽀
깨	꽤	주동이	주뎅이
팥	팟 뜯	병어리	병어리 @벼벼리
팽이	팽이 #꽝이(k'öŋgi)	수염	쉬염(süyam)
쇠스랑	소시랑	턱	턱 #터거리
메다	#민:다	혀	서 서빠다
호미	호맹이 \$@호무	가슴	가심
자루	자리	거드랑	저드랑 저탈민
쇠	쇠(sö)	배	배
도리깨	도리깨	배꼽	배꼽
갈퀴	갈쿠	쓸개	썰개 @쓰래
고무래	당그래	위(胃)	\$위(i) @방툇
도끼	도치 #도끼	방귀	방구
맷돌	매 \$돌매	폐(肺)	폐
암/솟쇠	#암쇠/중쇠	무릎	\$물팍 @#무릎
정강이	정갱이	매(鞭)	매
손아귀	\$소나구	벌(罰)	벌
원손	외약쓴(öyaks'on)	왕	왕
마디	\$@매두 #매디	왕-이	왕이
빼	빼 빼다구	교장	교·장
뺨	뺨	사람-이	사라미 \$사래미
팔	팔	귀신	귀·신(kü:sin)
털	터럭	부엌	정지 부엌 부석
앞	아비(-이)	부뚜막	부뚜막
뒤	뒤에(-애)	술	숏
부스럼	@찌껄 #부시럼	술-하고	#소더고
가렵다	\$가깝다 @개렵다 #개롭다	똑배기	똑빼기 #툭시발
흉	승 흉	아궁이	아궁이 아궁기
때	때	삭정이	#갈쿠나무
감기	강기 \$고뿔	부시	부시
경기(驚氣)	\$경기 @정풍 #정끼	그을음	꼬시름 \$수껍댕이
홍역	@홍진 #호녁	내	영기 #냉가리
할아버지	하나부지 하나씨	넙다	#내움따
할머니	할머니	숯	숯

표준어형	고창지역어형	표준어형	고창지역어형
어머니	어무니 어머님	밥-이	바비
며느리	매누리 #매나리	밥-하고	\$바마고 #바버고
사위	사우	주걱	주걱
시누이	시누	김치	김치 \$지: 짐채
을캐	오라부먹, 동상먹 \$을채	깍두기	깍뚜기 \$쪼각찌 #까대기
누나	누나 누님	나물	너물
언니	언니	냉이	나승개
오빠	오라부 오빠 오라버니	고들빼기	@싸랑부리
아우	아우 아오	도라지	도라지
아우보다	아시본다	뻘기	뼈비
아주머니	아짐 아짐씨	캐다	캔다, \$챈다
외삼촌	외삼춘	양념	양님
형	성님 형님	된장	된장(tönçan)
형제	행재 형재	두부	뜨부
삼형제	사맹재 사명재	김	김:
효자	효:자	물	불
이웃	이웃 웃	충늄	충님
남	넘	라면	나면
혼자	@한자 #혼차	감	감:
배다	밴:다	고욤	#취감
태	태	호두	추자 호도
돌(期)	돌	굴	귈(kü:l)
곧지곧지	\$#지개지개	오디	\$오디 @오등애 #오들개
도리도리	\$도리도리 #도래도래	침외	차뫼
따로따로	#자뚱자뚱	가루	가리
잽챔	\$죄암죄암 #쥐엄쥐엄	수제비	수재비
짝짜꿍	\$#맨대맨대	칼국수	칼국수
꾀	꾀(k'ö)	어레미	얼땡이 얼멍채
회초리	회처리 회초리	시루	시루 \$시리
죄	죄(cö)	시루번	\$시리밴 #시루변
떡-하고	#띠거고	계수나무	개수나무
송편	@송편 #송편	느티나무	#정자나무
흰떡	힌떡	꽃	꽃
새알심	\$@새알심	향기	#향내
튀밥	튀밥	질경이	\$질갱이 #쩝쩝이
꿀	꿀	칡	칙

표준어형	고장지역어형	표준어형	고장지역어형
별	별:	잔디	\$잔디 @잔뒤
껌	끔	부추	솔
가오리	가오리	꼴	깥:
회	회 @회평	개	개
갈치	갈치 \$칼치	고양이	고양이 #귀앵이(küyəŋi)
고등어	고등어	돼지	되야지(töyaji)
매기	미:기	염소	맴생이 맴소
홍어	홍어	노루	노리 노루
조기	조구	핥쾡이	살가지
아가미	아가미	여우	\$여우 #여시
소금	소굼	토끼	토끼 토깽이
석쇠	@적쇠 #석쎄	호랑이	호랭이
가시	까시	쥐	쥐(cü)
미끼	@낙수밥 #고기밥	다람쥐	다람쥐 #다름지
게	기:	닭	닥
새우	새비	노른자위	노랑자 #노랑좆
굴	굴 #석과 끌	모이	모시
헝겁	흉겁 \$헝겁때기	거위	때꺼우 개우
무늬	무니 #무누	기러기	#기러기
배	배	꿩	꿩
목화	미영	까투리	까토리
재봉틀	@재봉침 #자봉침	장끼	챙기 #제:끼
꿰매다	#깰민다	제비	재비
골무	골미	매	매
가위	가새	덫	\$차꾸 #덫
반진고리	바늘상자 \$바늘쌍지	올가미	\$옹노 @올치 #꿩:치
버선	보신 보선	겨누다	#저눈다
컬레	커리	새	새
소매	소매	떼(群)	떼
조끼	\$조끼 @저끼 #조개	자라	@자:라 #자:래
두루마기	두루매기	개구리	깨구리 깨구락지
치마	치매	구렁이	구뎅이
만들다	\$@맨들다	두꺼비	뚜깨비
인두	인두	거마리	거:마리
화로	화리	달팽이	달팽이

표준어형	고장지역어형	표준어형	고장지역어형
햇대	#해때	우렁이	우렁
옷·하고	#오더고	지렁이	지랭이 \$꺼시랑
베개	비:개	굼벵이	굼:벵이
요	요대기	구더기	고자리 #뚱버리찌
다듬잇돌	다디미똑 다듬똑	그리마	#기립
기저귀	지지구	나비	나비 나부
밤(栗)	밤:	누에	뉘(nü) 뉘에
상수리	상수리	매뚜기	매뙤기 매뛰기
도토리	도토리	모기	모구 모기
사마귀	@땅개비 #사막	이슬비	#이슬비
여치	연치	해무리	해머리 @핸머리
반딧불	@개똥벌레 #쇠똥벌레	달무리	달머리
파리	포리	썰물	\$써는물 #쓸:물
쉬	#쉬(sü)	밀물	\$드는물 #민물
거미	거무	밤(夜)	밤
가을	가을	별	별:
겨울	겨울	은하수	으나수
눈	눈:	회오리바람	소소리빠람
올해	오래	가	#가:시(-이)
내일	#내일	가운데	#가운대
어제	@어 저께 #어재	벼랑	배랑빡 @낭떠러지
그제	@그 저께 #그재	바위	바우
그끄제	#그끄재	돌(石)	독
글피	그꽤	거풀	버쿰 버큼
하루	\$하리 @하래 #하로	맑다	마따
이틀	이틀	메아리	\$매아리 #미야리
사흘	사을	먼지	몬지 문지
나흘	나을	모래	모래
닷새	다세	밝다	박따
엿새	여쎄	밀	\$미티(-에)
이레	이래	위	우개(-에) 우그로(-으로)
여드래	야드래	뒤곁	뒤안
아흐래	아으래	대장간	성냥간 @대정간
열흘	여를	풀무	불무
하나	하나	기둥	지등

표준어형	고장지역어형	표준어형	고장지역어형
둘	둘·	마루	마루 말캉 말리
셋	셋· \$서이	열쇠	쇠매
넷	넷· \$너이	자물쇠	자물쇠 쇠통
다섯	다섯	기와	\$개와, 제와 #지아
여섯	여섯	지붕	지붕
일곱	일곱	용마름	용마람
여덟	야달	이영	마람
아홉	아음	유리	유리
열	열	리어카	니야까
스물	수물	바퀴	@바퀴 #바꾸
서른	서룬	사닥다리	사대리
마흔	마운	돌쩌귀	돌쩌구
쉰	쉬운 첸:	얼마	얼매
예순	예순 \$여순	외상	외상(ösan)
일흔	이른	빛	벳
여든	아든	거스름돈	거시름뜬
아흔	이은	삯	삭
새벽	새복 새복	횡재	#홍개
아침	아침	계	@개 #지:
점심	점심	궤	@뒤지 #괴(kö)
저녁	자녁 #재녁	살강	살강
노을	@노을 #북색	두레박	두름박
소나기	쏘내기	긷다	질러와라
가랑비	가랑비 #가는비	거문고	\$거몽고 #거멍고, 가금
팽과리	\$팽가리 @깽뱅이 #깽시개이	라디오	나지오
고누	꼬니 꼬노 꼬뉘	벼슬	배실
바둑	바독	서랍	￭다지
소꿉놀이	바꿈사리	묘	묘 #미시
슴박꼭질	슴바각질	평계	평개
멱	멕 모욕	성묘	성묘 #성묘
그네	그네	전화	저나
윷	윷 #솟	종이	종이 #종우
팽이	▶어리 팽이	편지	편:지
권투	곤투 #건투	표	표
쐐기	쐐기 #啐기(s'ü:gɪ)	휘발유	시발류
석유	새규	휴지	휴지 #수지

표준어형	고장지역어형	표준어형	고장지역어형
결혼	개론	의논	으논
장가	장:개	교회	교외 과외
가마	가:매	왜놈	외놈(önom)
열레빗	어리빗	짧다	자롭따 잘롭다
참빗	챔빗	가르치다	갈치다
계시다	개신다	깨다	깬다
글	글	휘다	휘:나(hü:nda)
나루	나루	죄다	천:다(cö:nda)

고전문학번 학술 답사 보고서

1. 답사 내용

(1) 기간

1997년 4월 23일~4월 25일(2박 3일)

(2) 지역

경기도 양주군·남양주군,
강원도 철원군 일대

(3) 목적

이번 답사의 주된 목적은 서울의 동북부 외각 지역 특히, 북한강 유역에 남아 있는 조선후기 문학 유산의 자취를 꼭넓게 살펴보려는 데에 있었던 만큼, 새로운 문헌자료를 찾거나 구비전승 자료를 채록하는 것과는 다소 성격을 달리하였다.

가능한 여러 유적지를 탐방하려는 목적에 이바지하기 위해서는 자료조사와 사전답사가 필수적이었다. 양주 檜巖寺, 철원 三金淵瀑布·孤石亭, 남양주 奉先寺·水鍾寺를 비롯하여, 金昌翕의 은거지로 유명한 藥溪, 조선후기 노론계 문인과 학자들을 배출한 石室書院, 그리고 茶山 정약용 선생의

생가 등을 중심으로 사전답사를 다녀오고, 이를 바탕으로 각각의 유적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였다. 자료집은 대략 지역별로 지리·문화적인 개관을 신고, 해당 유적에 관련된 문인의 행적과 작품, 여행기, 논문, 구비문학 자료 등을 선별하여 게재하였으며, 답사 기간 동안 충실한 자료로 활용하였다.

(4) 참가인원

지도교수 : 민병수·박희병 교수
인솔조교 : 김남기, 황재문, 김동준
박사과정 : 김은정, 류준경, 이경하,
이지영(이상 4명)

석사과정 : 김아리, 서정민, 심우장,
임재욱, 배수찬, 권정은, 정진희, 이민
희, 정길수, 김복영, 임지오(이상 11명)

학사과정 : 김하라, 곽지윤, 김은아,
박이정, 이은주, 서우종(이상 6명)

2. 답사 일정 및 활동내용

◎ 제1일 : 4월 23일 오전 강변역에
집결, 첫 번째 일정이었던 양주 檜巖
寺로 향했다. 희암사는 고려 충숙왕

때 指空이 창건하여 懶翁과 無學 등이 거처한 절로 이름이 높다. 지공과 나옹의 부도 및 석등, 무학대사비, 쌍사자석등 등 귀중한 유산이 회암사지 안쪽에 위치한 현재의 회암사에 보존되어 있었다. 회암사지에 남아있는 당간지주와 초석들의 규모를 통해 『동국여지승람』에서 말한 바, ‘동방에서 첫째 가는 절’이었음을 실감할 수 있었다. 다음 답사지는 철원의 三釜淵瀑布와 狐石亭이었다. 삼부연폭포에 대해서는 궁예가 楓川原에 도읍을 정할 때, 이 폭포에서 도를 닦던 이무기 세마리가 폭포 기암을 하나씩 뚫고 하늘로 올라갔는데 그 때 생긴 穴淵으로 인해 三釜淵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다는 전설이 전한다. 또한 이곳은 金壽恒과 그의 三子 三淵 金昌翕의 안거지로도 유명한 곳이었는데, 李敏求, 金昌翕, 李景奭 등의 한시가 남아 있다. 이어 찾아간 狐石亭은 절경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었다. 고려시대에는 절벽에 석실의 형태만 있었다고 하는데, 조선시대에 이르러서는 이곳에 숨었던 임꺽정을 기려 정자를 지었다고 한다. 신라 진평왕과 고려 충숙왕이 노닐었다고 하는 풍광이 과연 철원팔경 중에 들 만했다. 金良鏡, 李

穀, 中潤祐 등이 남긴 한시와 無畏, 許穆의 記文을 통해 고식정의 옛 모습을 떠올리기도 하였다. 광릉 숙소로 향하는 길에 김창흡이 은거했다던 仁雲溪谷에 잠깐 들렀으나 개발의 여파 탓인지 옛 문인들의 풍취를 느끼기에 는 미흡하였다.

● 제2일 : 아침 식사 전에 奉先寺 경내를 돌아 보았는데, 강희맹이 짓고 정난종이 쓴 봉선사 대종의 鍾銘이 눈에 띠었다. 봉선사는 세조비 정희왕후가 光陵의 원찰로 중창했다고 한다. 식사 후 곧장 광릉에 도착하였는데, 광릉은 세조와 세조비 정희왕후를 모신 곳이다. 이 날은 여러 왕릉이 답사 일정에 끼어 있어서 洪陵과 裕陵을 비롯, 흥선대원군 묘까지 답사하였다. 金谷陵으로도 불리는 흥릉과 유릉은 각각 고종황제 내외와 순종황제 내외를 모신 능으로, 대리석으로 장식된 직선 형태의 墓道에서 황제의 능을 본받았다는 사실을 살필 수 있었다. 답사 일정 가운데 石室書院 遺址를 들러보는 것은 조선후기 북한강이 갖는 역사적 의미를 되돌아 볼 수 있는 기회였다. 석실서원은 효종 때 金尙容·金尙憲 형제의 위패를 모신 祀宇로

건립된 뒤, 金壽恒·閔鼎重·李端相·金昌協 등의 위패를 봉안했었다고 한다. 이곳은 김수항, 김창협, 김창흡 뿐만 아니라 홍대용과 박지원 등 노론계 학자와 문인을 배출한 곳으로 유명하다. 조선후기 사상의 분위기를 살펴보려면 북한강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데, 이는 북한강 일대가 조선후기 사상사에서 영향을 미친 대학자와 대문인들을 배출한 지역이기 때문이다. 노론계의 학맥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는 석실서원을 비롯하여, 만년에 소내에 은거하며 학문을 집대성하였던 남인 학자 다산 정약용의 생가가 남아 있는가 하면, 강화학파의 대학자 石泉 申緯이 소내 남쪽 건너편 사마루[社村]에서 학문을 연마하였던 것이 모두 이곳 북한강 유역을 배경으로 삼았던 것이니, 조선후기 북한강의 분위기가 곧 조선후기 문화의 한줄기를 장식했다고도 할 만한 것이다. 당색을 떠나 많은 지식인들이 내왕하면서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받았던 시대를 떠올리며, 창조의 공간으로 북한강 일대가 부각되었던 상황을 충분히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었다. 특히, 석실서원 유지는 북한강 일대가 한눈에 들어오는 곳에 위치해 있어서 전망이 참으

로 빼어났는데, 천혜의 자연 조건이 지식인들의 정신세계를 풍요롭게 만든 한 동기가 되었을 법했다. 다만, 학문적 열정과 풍요를 동시에 담아내었던 석실서원이 이제는 그 유지마저 찾기 힘들 정도로 사람들에게 잊혀져 가고 있다는 사실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었다. 석실서원에 이어, 김창흡의 은거지이자 이항로의 생가가 남아 있는 벽계를 들러본 다음, 서거정이 ‘동방 사찰 중 전망이 제일’이라 칭찬한 水鐘寺에 올랐다. 벽계는 이항로가 주희와 송시열을 흡모하며 학문을 닦던 곳임과 동시에 김창흡이 수많은 한시를 창작하였던 곳이다. 이날 저녁 이를 간의 답사에 대한 평가가 있었는데, 충실히 준비한 자료라 하더라도 답사 이전에 충분한 학습이 필요하다는 지적과 더불어, 조선후기 문인들의 발자취를 통해 그들의 정신세계에 보다 가까이 다가갈 수 있었다는 평이 나왔다.

◎ 제3일 : 한학선생신도비와 다산묘를 돌아보았다. 묘비를 탁본할 준비가 되어 있었으나 사정이 여의치 않아 실제 작업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오전 중에 답사 일정을 끝내고 각자 편리한 교통편을 이용하여 서울로 돌아왔다.

이번 답사를 돌이켜보면, 종래 문헌반
답사의 의미를 살려 답사지역의 문헌
도 같이 조사할 필요가 있었으며, 답
사지를 중심으로 전개된 문화와 유적
에 대한 심도있는 발제 및 발표가 답
사 이전 혹은 답사 진행 과정에서 이
루어질 필요가 있었다는 것을 문제점
으로 지적할 수 있겠다.

현대문학반 학술 답사 보고서

1. 결단식 및 편성

통산 9번째인 학술답사를 위해 4월 21일 월요일 2동 202호에서 예비모임 및 결단식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답사를 위한 간단한 준비절차를 숙지한 후, 답사지역에 대한 간단한 예비 안내를 받았다. 답사 목적지는 전라북도 부안, 고창, 정읍 일대였으며, 대상작 가로는 신석정, 서정주였다. 그와 함께 올 해 새로 제막한 정한모 선생 시비 견학과, 가람 이병기 선생 생가 방문도 계획되었다.

(1) 기간

1997년 4월 23일~4월 25일

(2) 지역

전라북도 부안군, 고창군,
정읍군 일대

(3) 참가 인원

지도교수 : 오세영 · 조남현 교수

인솔조교 : 김석봉

박사과정 : 송기한, 권일경, 박현수,
홍재범, 임재서(이상 5명)

석사과정 : 김주리, 김은경, 이수형,
노지승, 김경욱, 임희섭, 칸 미츠하루,
신원용, 서진영, 정준형, 이수영, 방은
주, 최혜림, 박희일, 김윤정, 정의열,
노애리, 김정화, 김영실, 이지훈, 김준
우, 강병조, 최태원, 배개화, 고하영(이
상 25명)

학사과정 : 이영아, 이동건, 강심호,
조성진, 최지녀, 손유경, 권근영, 엄윤
주, 이경재(이상 9명)

2. 답사 일정

1997년 4월 23일 반포 뉴코아 백화
점 후문 주차장에 집결하여 관광버스
를 이용 당일 오전 9시에 출발하였다.
서울을 떠나 정한모 선생의 시비를 보
기 위해 우선 충남 부여로 향했다. 12
시경에 부여에 도착한 답사반은 새로
제막된 시비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오
세영 교수께 일모선생에 대한 추억담
을 들었다. 시비에는 일모선생의 육필
시가 조각되어 있었다. 점심을 부여
시내의 식당에서 먹고, 익산에 있는
가람 생가를 향해 출발했다. 예상보다
늦게 2시 경에 가람 생가를 둘러 보게

되었다. 오세영 교수는 가끔 선생의 인품과 학풍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다. 생가 방문을 마친 후, 최근에 새로 복원되기 시작한 근처 미륵사지를 관광했다. 일정이 바쁜 관계로 바로 신석정 생가를 찾아 부안으로 향했다. 그 곳에서 송수권시인이 답사반에 현지 설명을 위해 참가해 주셨다. 부안읍내에 있는 생가는 집주인이 바뀌어 제대로 견학할 수 없었다. 여러 문화단체에서 세워준 청구원이라는 명표들은 모두 넘어져 있었고, 당시 유명했던 정원은 자취를 찾을 수가 없었다. 쓱쓸한 기분을 뒤로하고, 신석정 시인의 시비를 견학하기 위해 다시 해창으로 향했다. 시비가 위치한 해창은 바다가 보이는 운치 있는 곳이었지만, 그곳도 곧 간척사업으로 경관이 훼손될 것이라는 말을 들게 되었다. 일정이 늦어져 바삐 견학을 마치고, 격포에 있는 숙소로 향했다. 5시에 숙소에 도착하여 여장을 풀고, 일몰을 보기 위해 방파제로 산보를 가게 되었다. 숙소로 돌아와 저녁을 먹고, 학부생 손유경이 신석정 연보발표를 했고, 오세영 교수와 송수권 시인께서 자세한 설명을 해주셨다.

답사 2일째인 4월 24일 아침 일찍

식사를 마치고 근처에 있는 채석장을 관광했다. 관광을 마친 후 현지 교통을 이용하여 내소사를 향해 출발했다. 12시 경에 내소사에 도착해서 관광 및 점심을 마치고, 다시 미당 생가를 향해 출발했다. 미당 생가는 선운리에 있었는데, 버스가 잘 다니지 않는 곳이어서 불편을 감수해야 했다. 미당 생가의 바로 옆집에 미당의 동생분이 살고 계셨기 때문에, 그 분에게 회고담을 들을 수 있었다. 미당 생가에서 숙소까지는 버스편이 없었기 때문에 도보로 1시간 가량 이동했다. 숙소는 선운사 부근 민박에 정했다. 숙소에 도착해서 여장을 풀고, 저녁식사를 마친 후 학술발표를 가졌다. 미당의 연보를 학사과정 이영아 학생이 발표했고, 주제 발표는 박사과정 임재서 학생이 「질마재 신화 고찰」이란 제목으로 하게 되었다. 자유로운 토론과 홍금을 털어 놓는 대화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식사 후 선운사를 관광했다. 일정이 지제된 관계로 예정되었던, 정읍의 황토현 전적지는 견학할 수 없었다. 바로 고창 고속버스터미널에서 점심을 먹은 후 일정을 마무리하고 서울로 향했다.

3. 주제 발표문 내용 요약

신석정의 주제발표는 송수권 시인께서 구술로 대신 하셨고, 아래는 미당의 주제 발표문인 「질마재 신화 고찰」이라는 박사과정 임제서 학생의 글을 요약한 것이다.

질마재는 미당의 고향마을의 이름이다. 미당이 자신의 유년시절의 기억들과 전해들은 체험 설화를 시로 썼는데, 이것이 『질마재 신화』이다. 1972년 2월부터 『현대문학』에 「속질마재신화」라는 제목으로 발표하기 시작했고, 이것이 75년 5월 『질마재 신화』로 집성된 것이다. 구수한 입담과 사설풍의 가락으로 자신있게 읊어낸 이 시기의 시들은 그의 문학적 전성기를 보여주고 있다. 총 45수의 시가 실려 있으며, 대부분 산문시의 형태를 띠고 있다. 예전의 시에서 보이던 고향탈출의지가 감소되고, 떠돌이로서의 고백과 순진무구한 고향의 정경의 묘파가 함께 하고 있다.

미당은 여기서 고향탈출의지를 벗어 던지고, 다시 떠돌이로서 고향을 그리워하고 있다. 그러나 영원한 귀향 불가능성 속에서 갈증하고 있는 모습은 도시라는 근대의 폭력성이 그만큼 압도적이었음을 반증하는 것일 수 있다.

한편 이 시기의 유년체험을 소재로 한 시들의 또 다른 특성으로는 공포를 다스리는 방법을 들 수 있다. 죽음의 근원적인 타자성을 공식적인 문화체계로 수렴시켰던 미당은 죽음에 대한 공포를 신라 정신이나 불교에 의탁했었다. 그러나 『질마재 신화』에서는 다시 자신의 시선을 일상의 바닥으로 내려놓고, 일상을 통해서 걸러진 영원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모습은 특히나 자주 사용되는 비속어에서 그 표현적 특성 또한 찾아질 수 있는데, 하늘과 지상을 이원론적으로 분리하는 것을 지양하려는 노력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이원론의 지양은 범신론을 향하는 바, 그것은 시적 축제의 공간을 마련하게 되었을 것이다. 이 축제의 공간 속에서는 물론 주술적 사유가 죽음을 치유하는 중요한 역할을하게 되는 것이다.

요컨대, 서정주의 『질마재 신화』의 특징은 일상성과 주술성으로 압축되어 질 수 있을 것이다. 문화체계가 아닌 일상적인 공간에서의 시적 체험은 당연히 주술성이라는 원시적인 죽음 다스리기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이 시집의 신화라는 제목은 결국 이러한 미당의 상상력의 완숙기를

대변해주는 어휘일 수 있을 것이다.
신화적 상상력의 완숙이라고 할 수 있
는 이러한 모습은 그의 후기시를 예비
하고 있다.